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동 만

존경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전국의 산업보건 관계자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덕담을 건네며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 몇 년째 암울한 소식만 전하는 듯하여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뒤숭숭 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 당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를 걷어내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국민의 얼굴이 환해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정부와 자본은 쉬운해고 도입과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하여 상



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파견법 개악과 기간제 기간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착화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추진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를 기계부품으로 여기고 이윤추구만을 중시한 사업주로 인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9만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 대기업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노동자 매탄을 실 명사고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망재해 및 산업재해가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소규모 노동자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양극화 그리고 갈수록 열악해 지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문제를 풀지 않고 서는 노동자 죽음과 직업병 발생 등 산업재해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최근 경제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고, 내수 위축과 수출 감소가 겹치면서 경제 회복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후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제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가 소중하며 우선 되어야 합니다. 정부 또한 기업이 안전보건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산업보건 전문가 여러분!

여러분의 신념과 땀방울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소중한 가정과 기업을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노총은 2017년에도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산업보건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노동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을 비롯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입니다. 흔히 닭은 오덕을 가진 동물이라고 말하며, 새벽을 밝히는 신통력을 지닌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새벽을 밝히는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어둠을 몰아내고 노동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밝히는 한해가 되시기 바라며, 산업보건 관계자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 행운과 발전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